중간상이 원산지 속이면 음식점·소비자 속수무책

美쇠고기 호주산 속여 판 광주 식육점 업주 입건

최근 광주의 한 식육점이 미국산과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 소형 음식점 등에 판매하다 적발됨에 따라 식육점이나 중간상 등 쇠고기 유통업체에 대한 단속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식육점 등 중간상인이 원산지를 속일 경우 납품받는 음식점은 물론 이를 사먹는 소비자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 27일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광주시 남구 봉선동 H 식육점 주인 박모(32)씨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일주일 전 광주시 남구 봉선동 자신의 식육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갈빗살 100kg가량을 호주산으로 속여 6개 식당과 레스토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H 식육점 지난 3월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쇠고기를 유통해 오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높아진 4월부터 음식점들이 미국산 쇠고기 납품을 거부하자 이를 호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식육점은 미국산 쇠고기 포장에 표기된 원산지를 지우고 호주산 라벨을 붙였으며, 거래명세서까지 조작해 원산지 표기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H 식육점은 뉴질랜드산 쇠고기 1천200kg 가량도 호주산으로 속여 음식점 24곳에 판매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으며, 농관원은 원산지를 속여 판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중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판 도매업체가 적발된 경우는 광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H 식육점으로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납품받았던 음식점 주인들은 원산지가 조작된 사실을 적발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처럼 식육점 등 중간상이 쇠고기 원산지를 속여도 음식점이나 소비자들은 구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농관원 단속반 관계자는 "이들은 H 식육점과 오랫동안 거래를 해오면서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오히려 속이기가 훨씬 쉬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 관계자는 "농관원은 원산지를 허위표기한 업체의 실명을 공개해 다시는 이런 업체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억대 귀금속 운송도중 '증발'

배낭 6개, 무게만 105kg…두차례 사라져

귀금속 등을 운반하던 화물차에서 1억3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있는 배낭이 두차례에 걸쳐 도난당했다. 귀금속 무게만 105kg인데도 운송 도중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지난 14일 오후 3시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주차장에서 박모(49)씨의 1t 화물차에 실려있던 금반지, 팔찌 등 1억원 상당의 귀금속 배낭 6개(1개당 15kg)가 사라진 것을 박씨가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운송 도중 캔 커피 4개를 사러 잠깐 자리를 비운 것밖에 없는 데 배낭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운전사 박씨는 광주지역 보석상의 귀금속 등을 운반하는 광주시 북구 W물류회사 직원이다.

지난달 26일에도 W물류회사가 서울시 마포구 한 귀금속 가공처리업체로 운반하던 3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든 배낭이 이송 도중 도난당했다.

경찰 수사결과 W물류회사는 1t 화물차의 짐칸에 포장만을 씌운 채 귀금속 등을 옮기는 등 운반 체계에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고가의 귀금속을 운반하면서 2인 1조가 아닌 단 한 명이 운송을 책임졌다.

경찰은 귀금속의 무게가 배낭 한 개당 15kg이나 되기 때문에 2명 이상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덩실덩실 전통춤 춥시다" 옷감 체험, 토기 만들기 등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우리문화로 떠나는 여행' 행사가 28일부터 3일동안 광주시 남구 대촌동 대촌중앙초교에서 열린다. 28일 오전 대촌중앙초교 학생들이 우리나라 전통 춤인 '미얄 할미춤'을 배우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시시 제작 및 상담환영
▶서울본사 : 02) 3445-0943
▶나주공장 : 061) 337-0571

판매 중단 요구에 미 쇠고기 전량 반품

광주·전남지역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던 유통회사가 시민단체의 끈질긴 판매 중단 요구에 결국 남아있는 물량을 전량 반품 처리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반대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구 A 유통업체가 이날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미국산 쇠고기 1.5t을 서울지역 수입업체에 반품했다는 것. 이 업체는 지난해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2t을 지난달 들여와 광주·전남북 지역에 0.5t을 유통했었다.

A 업체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판매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광주 시민단체 '가짜 한우' 첫 공익소송

광주의 시민단체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시내 대형음식점을 상대로 사상 첫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광주경실련과 광주YMCA는 28일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팔다가 적발된 광주 서구 H음식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소비자 22명을 대리해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이 단체들은 또 이 음식점 업주를 사기죄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그동안 쇠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판 사례는 식품과 사법당국에 의해 빈번하게 적발돼 왔으나 시민단체가 피해자를 모아 공익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교장이 '거짓 청첩장' 보내 축의금 받아

광주교육청, 직위 해제

정년을 앞둔 현직 교장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녀의 결혼식을 연다며 '거짓 청첩장'을 발송, 축의금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S중학교 Y(63) 교장은 최근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 등 지인 340여명에게 '아들의 결혼식이 7월 20일 오전 11시30분 서울의 G예식장에서 열린다'는 내용의 청첩장을 발송했다.

서울에서 열리는 점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고 판단한 80여명은 Y 교장에게 축의금 봉투를 전달했다. Y 교장은 결혼식 현장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난 17일 광주 모 식당에서 피로연까지 열었다.

그러나 결혼식을 참석할 예정이던 사람들이 식장의 위치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Y 교장 아들의 결혼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Y 교장은 뒤늦게 교직원 등에게 축의금을 돌려줬다.

Y 교장은 "피치못할 개인적 사정 때문에 아들(36)의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 친구들이 정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경제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첩장을 만들어 뿌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8일 Y 교장을 직위해제했다. Y 교장은 8월31일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성범죄 예방교육 덕분에… 초등생이 성추행범 잡았다

3년전 범행 신고 검거

3년 전 7살짜리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범인이 학교에서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은 피해 어린이의 신고로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시 북구에 사는 A(34)씨는 지난 2005년 7월 초께 광주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인 B(당시 7세)양을 발견, "과자를 사주겠다"고 접근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했다. 당시 B양은 성범죄 피해를 알지 못했지만 최근 학교에서 받은 성폭력범죄 예방교육에서 A씨가 자신에게 저질렀던 행동이 파렴치한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양은 예방교육 이후 학교에서 돌아와 3년 전 일을 부모에게 알렸고, B양의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시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30~40대 남성들의 사진을 B양에게 보여준 뒤 최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 살고 있는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하지만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던 B양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집중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이웃집 여성 속옷 상습 절도

쌍나팔

○…광주북부경찰은 28일 여자들이 살고 있는 이웃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여성용 속옷을 훔쳐온 장모(34)씨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10일 밤 9시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A(여·30)씨의 원룸에 침입해 속옷과 치마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8회에 걸쳐 시가 100만원 상당의 여성 속옷을 훔쳤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여자 혼자 사는 집인 것을 미리 확인한 뒤 A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발코니 창문을 통해 침입을 했는데, 경찰에서 "성적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여성 속옷 등을 훔쳤다"고 진술.

○…경찰은 "속옷이 자꾸 없어진다"는 A씨의 신고를 받은 뒤 A씨의 동의를 얻어 집에 CCTV를 설치해 장씨를 검거.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